공안의 칼날에 벤 시대의 양심들

대외특집 전국 제적생 복적 추진위원회 건설에 부쳐

6공, 학원탄압 가속 제적생 2천여명 낳아

투쟁 정당성 회복위해 복적 이뤄져야

"전원복교 쟁취하여 학원자주 앞당기자"

지난 2월 26일 서울대학교 앞에서는 졸업생과 제적생이 한데 어우러져 졸업식을 장식하는 흔치않는 광경이 벌어졌다. 졸업생에 비해 사람 수도 적었고 가족도 없이 졸업식장 한쪽을 메꾸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정당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제적생들의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애국민주세력 모두의 문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계각층의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점차 사회적 여론화가 되고 있는 것은 학내 민주화 운동 등을 들 이다가 제적된 학생들의 복적 문제이다. 93년 1월 10일 현재 학원자주화투쟁과 관련한 제적생 수는 430여명, 구속, 수배, 입대 등으로 등록하지 못한 미등록 제적생이 820여명, 학사제적은 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수배자를 포함하면 6공 5년동안의 제적생 수는 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제적은 학원 자주화, 사회민주화의 투쟁속에서 집권층의 민주진영에 대한 탄압으로 이뤄져왔다. 주요 학내사태로는 89년 5월 기성회비 인상 등의 문제로 한 학생이 분신자살하고 6공 최초로 휴교령이 내려지며 32명이 제적당한 서울교대사건, 89년 7월 입시부정, 등록금반환투쟁으로 시작돼 전압경찰관 사망과 86명 제적으로 이어진 동의대 사건, 91년 6월 교내에 들어온 정원식 국무총리서리에게 밀가루를 던져 8명이 제적된 외에도 서울대, 세종대, 덕성여대, 숭실대, 경원대, 호남대, 수원대, 신구전문대, 인덕전문대 등이 학내문제로 관련 학생들이 제적당했다.

이와같이 학원자주화 투쟁이나 제단비리 등의 학내문제로 생겨난 제적생들이 나름대로 록소리를 담고자 지난 12월 6일 10여개 대학 70여명의 제적생이 모여 전국 제적생 복적 추진위원회(이하 전복추위, 회장:김정호 동의대, 4년 제적)를 건설했다. 그후 전복추위에서는 12월 7일 교육부 항의방문과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또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회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복적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제적생의 문제를 여론화 하였다.

6공화국의 학원탄압 양태는 여대 정권이 학원에 경찰을 상주시키거나 학원사찰 등으로 직접적인 탄압을 한 것에 비해 직접적인 탄압이 아니라 제단이나 학교 당국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원을 탄압하고 있다. 자율성 보장이라는 허울속에서 교육단체나 재단을 통한 대리통치를 주무기로 삼았던 6공 정권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정국을 안정화 한다는 미명하에 공안정국을 유지하면서 학원자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던 학생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정권은 사립학교법등의 교육 관계법 개악을 통해 대리통치방식을 위한 공식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지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같이 떠받기기식의 행정처리로 제적생들의 복적을 미루어오고 있다. 정계와 복적은 학생에게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현 제도적 절차와 개선이 요구된다. 제적생들의 복적은 80년 3월, 83년 12월, 87년 7월에 있었던 '제적생 구제를 위한 특례'와 같이 언제까지나 정권을 잡은 이들이 즐겨쓰는 특별사례조처에만 화우되는 사안이 아니다. 복적은 학생의 정당한 권리회복 투쟁이다. 따라서 학생정계권에 대한 미민주적, 반교육적인 학칙이 개정되어야 한다.

복적투쟁은 학생의 잃어버린 제권리를 되찾음과 동시에 우리 학생들의 부패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제적은 단지 제적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와 사학재단은 학생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투쟁역량이 강화되어 힘있는 사업들이 진척될 때마다 어떠한 빌미를 들어 학생회를 분열시키려 한다. 이는 학생들을 불안케하고 결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은 생존권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복직문제나 해직교수 복직문제에 비해 비중이 적고 심하게는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다. 6공화국 5년 동안 학원자주와 사회민주를 위해 노력하다가 공안의 칼날에 잘린(?) 그들에 대한 배려는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민주세력의 권리회복과 투쟁의 정당성을 앞당기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서대기련 공동기자단〉
〈文責:정미경 記者〉

시사상식

◇…금리자율화에 관하여

인위적 배분방지, 국제경쟁 강화

금리자유화란 금리를 정책적으로 직접 규제하던 방식 즉, 금리를 바람직한 수준에 법으로 고시하고 그 수준 이상의 금리를 불법화하는 방법에서 탈피한다는 의미이지, 금리를 완전히 시장메카니즘에 맡긴다는 방임의 의미는 아니며 따라서 정책당국이 간접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 또는 공급에 개입하여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말한다.

8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금리를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조치들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련의 금리자유화 조치이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노사분규,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89년 하반기부터 다시 창구지도를 실시하여 금리를 규제하기 시작하여, 금리는 제도적으로만 자유화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금리를 규제하여 왔다. 1990년대 들어와 정부는 단계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올 6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금리자유화 조치중 제2단계를 조기시행할 예정이며, 제3단계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제4단계는 1997년 이후로 그때까지 자유화되지 않은 모든 금리를 자유화할 계획이다.

금리자유화의 목적은 금리를 정책적으로 직접규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금리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는 자금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저리로 배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다양화 됨에 따라 이러한 자금의 인위적 배분은 그 한계를 노출시키기 시작하였다.

둘째, 금리를 저금리 수준으로 규제하면 차입자금에 대한 선호를 촉진시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경영합리화보다는 저금리 혜택을 받고자 로비에 열중하는 기업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경기변동시 침체국면을 이기는 힘, 즉 불황내구력이 약해진다. 셋째, 금융의 국제화 및 개방화와 자본자유화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넷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경제도 복잡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적정금리 수준에 대한 판단도 어려워지고, 환경변화에 규제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 금융혁신으로 규제에 대한 실익도 점차 미흡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규제공리하에서는 금융기관의 차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또는 생산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대기업일 가능성이 많고 소액저축자나 중소기업은 담보능력의 결여로 공급을 이용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이는 저금리로 저축하는 사람들로부터 저금리로 차입하는 대기업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강 정 욱
〈 석사과정·경제학 〉

인터뷰 공도관도 분노한 "대사면"

— 자민통사건 연루자 김기수(경제·85)씨를 만나

지난 3월6일 대사면 당시 본교 출신 2인이 사면복권, 출소하였다. 이에 출소한 '자주민주통일(이하자민통)그룹'사건 연루자인 김기수(경제·85)씨를 만나 보았다.

—출소 소감은

▲모두 울었습니다. 3월6일 교도소 문을 열 때까지 아무도 사면 대상자를 몰았습니다. 나오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못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교도관들 조차 어연해 했고 석방되는 우리들도 가슴 아파해야 했습니다.

—자민통사건은 무엇인가.

▲조작이죠. 안기부에 끌려가서야 비로소 자민통이라는 명칭을 들어 보았습니다. 90년 10월경 민자당이 자신들의 집권을 강화하는데 있어 전대협이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89~90년 사이 전대협 정책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끌어다가 생전 들고 보도 못한 김일성 주석의 지령을 받고 만들어진 자민통그룹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전대협을 약화시키기 위해 반국가조직이라 규정되는 자민통이라는 조직사건을 만들어 사람들을 무더기로 끌어간 것입니다.

—학생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86년엔 학과에 있는 자본론 연구반에 있었고 이후 정경대 학술부장, 총학생회 편집부장, 89년에는 총학생회 정책의원이었습니다.

—90년 당시 처음 끌려간 곳은 어디인가.

▲안기부 남산분실 지하 139호로 갔습니다. 처음엔 발가벗기고 때리다가 군복을 입히고 고무신을 신기더군요. 그리고는 고무신으로 때리는데 그것은 고무신이 때려도 흔적이 남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숭마자세로 세워 놓기도 하고 아전침대 각목으로 때리기도 했는데 무엇 보다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가장 참기 힘들더군요. 저 스스로 제가 고문에 많이 꺾였음을 시인합

니다. 결국 2년6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우스웠던 것은 안기부와 치안본부 사이에 자민통사건으로 칭해지던 이 조작극이 서로 얘기가 맞지 않았던 점입니다. 자민통그룹사건의 명칭과 그 그룹에 대한 조직체계 계보가 서로 틀리니 말입니다.

—수감생활을 어떻게 보냈는가.

▲교도소도 하나의 작은 사회라 생각하고 생활하였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정치인, 조직폭력배, 연예인 등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각계각층의 생활들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하면서 사회역사와 과학의 연관성을 알았습니다. 특히 수감기간 책 4백여권, 편지 3백70여통, 접견 2백70회, 영치금 3백60만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최고가 아니라 애정과 신뢰를 받는 것이 뜻있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수감생활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제게 보내준 사람들의 애정은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대사면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일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죠. 사면복권, 강형, 가석방인원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대사면이라고 칭할 때엔 실출소자가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만기출소를 1, 2개월 남겨두고 나왔지만 만기를 이틀, 2, 3개월 남겨둔 사람을 석방했다고 의기양양해 하니 말입니다. 결국 명수에 비해 내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도관조차 분노한 사면이라면 대사면 자체가 허구라는 얘기죠.

—출소 이후 근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2년가량 사회와 동떨어져 있다보니 사회변화에 아직 익숙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고향에 갔다가 민가협 어머니도 찾아 뵙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중이던 22대 총학생회장 송규봉군도 접견해는 등 일단 어려운 동지들을 위로하려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망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만 우리 동지들과 함께 상의한 후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오지 못한 양심수들 특히, 건강한 우리 사회 일꾼인 동양알미늄 노동자 안상목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계속적인 투쟁으로 이 사회 양심수들을 위해 힘쓰고 싶습니다.

(姬)

수감중 보내준 동지들 배려에 감사

출소못한 양심수 석방에 노력할 터

한주메모

▲9월—법무, 보사, 건설 3부장관 경질인사단행, 검찰총장등 전격교체.

—장세동씨 자금지원 시인. "통일민주당 장당 방해지시한적 없다"진술.

—정부 신경제 1백일계획 골격마련. 중소기업활성화 등 11대과제 선정.

—수도권 광역전철망 96년까지 3백14㎞ 확정 발표. 경기도 연내 구체 계획 마련.

▲8월—정부,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선별복직안 제안, '탈퇴각서'전제, "조건없이야 한다"는 전교조 입장과 대립.

▲10일—장세동 전안기부장 구속,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과 관련, 검찰 '단독개입결론'.

—전교조, 교육부에 대화제의. 위원장 첫회견. 선별복직포함 모든 문제 협의제의.

—농림수산부, 추곡수매에서 제 내년도입시사. 5년단위로 수매량, 가격고시. 양곡유통위 강화 물량결정 등 중심축 삼을 듯.

—윤금이씨 살해미군 마클이병 2차공판. 범행제속부인.

—열린, 권력분점 새타협안 제의. 최고회의서 수용땐 국민투표 철회용의 밝혀.

—정주영씨 귀국. 현대그룹 1년내 분리매듭. 2세들에 경영권위임시사.

▲11일—이인모씨 조건없이 송환결정. 이르면 3월중 판문점 통과 검토.

—ILO 북수노조인정, 공무원단결권 보장 정부측에 권고. 전교조복직, 구속노동자 석방도 법적 구속력 없으나 이행의미.

—피의자 보호실 유지. 현행범아니면 불법판결.

—정부 재벌해체 적극 유도방침발표. 문어발구조탈피 등 전면 재검토.

▲12일—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기택대표, 최고위원 8인 선출.

—공무원 쟁의금지조항,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95년까지 법 개정토록.

—러시아의회 국민투표거부. 공공지출 등 모든 결정 정부·의회 공동관리 주장. G7 러시아 긴급지원 결정.

▲13일—북한 '핵확산금지조약'탈퇴 선언. 인민위원회 '특별사찰 관련 자위조치'성명발표, 정부대변인 "남북신뢰성 상실"성명.

'93 책의 해—열린 지성이 안목있게 선택하는 교양서!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國富論

상/하

현대적 시각, 새로운 번역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와 생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경제학의 고전!

■ 최초로 경제 현상을 학문적으로 정립시킨 경제학의 고전 「국부론」을
■ 서울대 강두평 교수가 「국부론」과 「자본론」사이의 이론적 계승과 단절을 역주 형태로 설명하는 등
■ 현대적 시각, 정확한 번역에 온 정성을 쏟아 내놓은—「국부론」 번역의 결정판
■ 킬브레이스 교수는 「성경」, 「자본론」과 함께 인류가 언제나 펼쳐볼 수 있는 책이라 극찬!

• 애덤스미스 지음/김수행 번역/상권·480면·하권 468면/각권 9,500원

통아출판사 ☎861-4818

20세기 최후의 대공황이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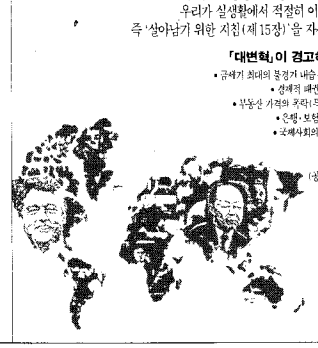
절찬리 판매중!

어떻든 살아남아야 한다!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다.
적어도 20세기 마지막 10년은 그렇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곤추세워 현실을 직시하고
앞날을 대비해야 한다.
미래는 항상 대비하는 사람편에 서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대공황의 실상을 낱낱이 분석함과 아울러,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대비책,
즉 '살아남기 위한 지침'(제15장)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대변혁」이 경고하는 충격적 사실들

• 금세기 최대의 불경기 내습(전세계적으로 이미 진행중)
• 정세적 패권주의, 민족적 이기주의 극성
• 부동산 가격의 폭락(특히 개인주택가격의 대폭락)
•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의 대파도 파산
• 국제사회의 혼란(첨단기술의 저렴화로 테러집단의 해두기 보유)
• 대대적인 실직 사태발생 (공직자들의 감원 선풍 국대화)
• 마르크스주의를 대신하여 이념 회교주의 등장



대변혁

J.D. 데이비드스 共著
W. 리스모그 著
송복선 譯/12,000원

통아출판사 ☎861-4818

—제33회 한국 출판문화상 수상—

한민족의 意識 속에 숨쉬는
象徵의 숲을 가다!

韓國文化상징사전

민족의 고유한 전통 문화 속에는
그 민족이 오랫동안 공유해 온
「상징의 숲」이 있다.
그 숲의 심연에는 자연물을 비롯하여
도구나 인간의 행동 규범 등의 의미가
면면히 내재해 있다.

한국문화상징사전의 특징

• 가장 한국적인 상징성을 띠는 160개의 항목을 선정, 민족 心性의 원형을 심층적 접근 두레박
• 선정된 항목을 9개의 층위(어원, 신화, 무속·민속, 풍습, 종교, 동양 문화, 역사·문학, 한내·서양, 도상)로 세분하여 접근
• 각 항목마다 풍부한 도상을 넣어 흥미진진하게 읽힐 수 있게 편집

■ 정가 : 45,000원

통아출판사 ☎861-4818